

이혼상담전문가 자격 취득한 스님들

‘이혼 시대’...가슴속에 응어리진 분노 풀고 화해 유도

이제 스님들도 팔방미인이 되어 가는 시대. ‘세속’을 떠난 스님이지만 신도들의 가장 가까운 고인을 달아주기 위해서는 가정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혼율은 전세계 2위. 전체 부부중 한해 이혼하는 쌍은 35%에 이르고, 이에 따른 이혼가정 자녀들도 18만명에 달한다.

이제 전문이혼상담기법을 배우기 위해 나선 스님들이 있다. 서울가정법원상담위원회가 주최하고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참여단체로 지원하는 ‘전국상담전문가 교육대회’에 참가한 도현(서울 정혜사 주지) 선업(서울 봉은사 교육국장) 효경(서울 금천사 한주) 헤타(용인 장경사 총무) 담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사회국장) 스님이 바로 그들이다.

11월 9일 국회현정기념관 강당에는 300여명의 교육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다. 중간 중간 목회자와 수녀의 모습도 눈에 띈다. 그 중에서도 희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은 단연 돋보인다.

스님들은 불교상담개발원의 추천을 받아 다른 19명의 불교 상담원과 함께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된 ‘전국상담전문가 교육대회’에서 교육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하루에도 3~4번은 이혼관련 상담을 받는다는 도현 스님. 상담과정에서 이해와 노력으로 문제를 극복한 가정도, 너무나 가정보다 보였다. 그 과정에서 제3자의 중재를 통해 가족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스님은 8년째 진행 중인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 프로그램에 이번 교육대회를 통해 배운 상담기법을



담교 스님(사진 앞)이 전국상담전문가 교육대회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접목할 생각이다. 헤타 스님 역시 가정문제도 고통 받는 사찰신도들을 위해 상담교육을 신청했다. 스님은 “이혼은 해도 고통, 안해도 고통”이라고 말하는 신도들에게 더 이상은 단순히 ‘하심하고 견디면 가정이 원만해진다’고 말할 수 없었다. 스님은 제대로 된 상담기법으로 고통 받는 가족 구성원들의 분노와 괴로움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평소 불자가족을 위한 상담기법이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선업 스님은 전문상담가가 되기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취득했다. 앞으로 스님은 교육 경험을 토대로 봉은사 신도를 위한 부부상담, 가족상담 기법을 도입해 프로그램화할 계획이다.

스님들은 이번 교육대회에서 40시간을 이수하고 ‘이혼상담 전문가 과정’ 수료증을 받았다. 앞으로는 각자

의 분야로 돌아가 교육받은 상담내용을 접목해 포교하는 한편, 내년 1월에 열리는 ‘전국상담전문가 교수양성과정’을 다시 수료할 예정이다.

교육대회 추진위원장인 담교 스님은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상담제도를 도입한 뒤로 이혼의사를 절절한 사례가 2배가량 늘어났다.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주고 당사자들간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 사진=이은비 기자

언론중재위, SBS에 ‘수경사 반론보도’ 명령

7월 30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수경사 그 후, 사라진 아이들의 진실은?’ 프로그램과 관련 언론중재위가 SBS에 반론보도를 명령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6중재부(부장 박정호)는 10월 25일 수경사와 수경사 언론불교대책위가 신청한 반론보도 요청을 받아들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내용을 보도하라고 11월 10일 결정했다.

반론보도문에는 “수경사측은 수경사의 승려들이 아이들을 감금 및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화상을 입힌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5일 방송된 ‘수경사의 두 얼굴’과 관련해서도 언론중재위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유철주 기자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체험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11월 27일 ‘제1회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체험’을 연다.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서울투어시티버스를 이용해 하루 동안 서울 시내와 경복궁을 관광하게 된다. 이은비 기자

“2900여 종단사찰 네트워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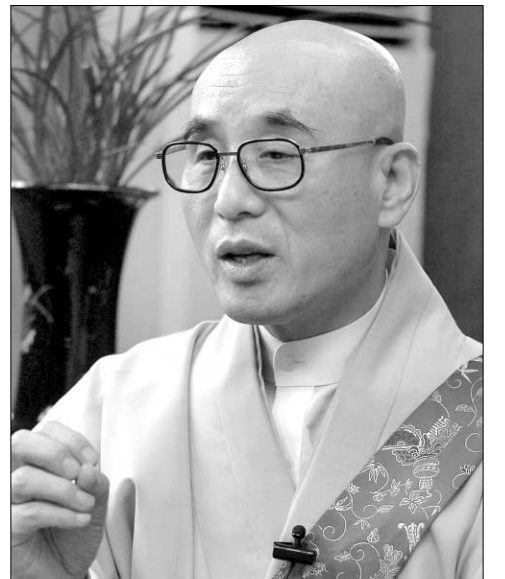
인터뷰 태고종 제23세 총무원장 운산 스님

“대승교화종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국민과 불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단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속에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 태고종 제23차 정기중앙총회에서 제 23세 총무원장에 재임된 운산 스님. 스님은 “지난 4년간의 1기 집행부가 종단발전과 중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시기였다면 2기 집행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불사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전승관 불사 등을 완성시켜 종단발전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태고종의 약집인 신행단체의 체질개선 방침도 분명히 했다.

스님은 “전국신도회와 청년회의 조직을 하향식 구조에서 상황식 구조로 재편하겠다”며 “신도들이 사찰신도회·청년회→교구총무원신도회·청년회→



조-태 분규사찰 대승적 해결 추진

전국신도회·청년회로 자연스럽게 상황식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운영에도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방 총무원 중심제에서 지역 중심제로 재편하여 조직강화 및 총무행정 활성화에 무게를 두어 종단조직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피력했다. 이는 현재 총무원과 지역총무원 분원 사찰로 연결되는 구조를 풀어 중앙 총무원과 종단신하 2900여곳 사찰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도록 하여 종단의 조직력과 결속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스님은 “사찰의 본래 기능인 사회정화와 대중교화, 그리고 신도들의 가정 및 직장(사업장)에서의 일상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실행 활동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종단사찰에 정착시키겠다”며 “상설연수원을 설립하여 종단 스님과 신도들을 교육하고, 여타종단들의 위탁교육도 실시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스님은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사찰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1954년에 발생한 종단분규는 한국불교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로 인한 분규사찰 문제를 종식시켜 조계종과 태고종 양 종단이 함께 손잡고 불교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스님은 “선교육 후속도제도 정착, 태고 총립 선암사의 울원설립, 신촌 봉원사 전통불교문화 중심도량화, 조태분규 해결, 중앙복지법인 운영활성화, 신도회와 청년회의 상황식 구조 재편, 70여 공사찰의 종단 구심 사찰로의 운영 등 종단중흥불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운산 스님은 1942년 충남 청양 출생으로 1960년 대전 대승원에서 이용봉 화상을 은사로 득도 수계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과 同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1975년도부터 총무원 총무부장, 법인 행정원장, 사무총장, 재단법인 이사장, 중앙종회부회장, 재일본 금강사 주지, 총무원 부원장 등 종단요직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목탁소리

불교계 환경 업무를 관장해야 할 조계종 환경위 간사가 최근 월급을 받지 못하게 돼 일을 그만뒀다. 2006년 사회부 예산에 환경위 간사 월급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위는 불교환경의제21 실천과 전국 차집은 없을

사찰오수정 것”이라고 화시설, 사 강조했다.

침수환경정 침해 등 종단과 사찰의 각종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며, 간사는 실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종무원이다.

이 일이 알려지지 않자 불교계 환경단체들을 비롯한 환경 전문가들은 불교계의 환경활동 전반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한 실무자는 “불교계의 핵심이 바로 생명과 환경이고, 이 분야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삭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내년 사업을 계획하다보니 부득이하게 환경 간사 급여를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총액 기준으로 사업비가 늘었고, 환경 담당 직원이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큰

차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 업무량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없다. 또, 다른 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는 환경담당 직원 혼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도 무리다.

지난 3년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모습을 드러낸 불교환경의제21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시점에서 실무인력을 줄이는 것은 아무래도 재고해봐야 할 것 같다.

■유철주(취재부 기자)

수행환경수호 공염불인가

사패산 보상금 관련 사과 성명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최근 불거진 사패산 터널 보상금 문제와 관련해 남양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이 11월 11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철안 스님은 사과문을 통해 “사패산 터널 보상금 문제와 관련하여 진위여부를 떠나 종도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철안 스님은 “사패산 터널 보상금은 3월 22일자로 회수해 회봉사 수행환경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보상비 전액은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안 스님은 이어 “사부대중께 재발방지를 약속드리며, 교구 불교 발전과 수행·자연환경 수호를 위해 더욱 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 업무량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없다. 또, 다른 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는 환경담당 직원 혼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도 무리다.

지난 3년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모습을 드러낸 불교환경의제21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시점에서 실무인력을 줄이는 것은 아무래도 재고해봐야 할 것 같다.

■유철주(취재부 기자)

불교문화콘텐츠 개발부진 이유 있다

조현철 교수, 시장부재에서 원인 찾아

불교는 흔히 콘텐츠의 보고(寶庫)로 평가되지만, 막상 둘러보면 제대로 된 콘텐츠가 드물다. 허물어 상업적으로 성공한 예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같은 현실을 반성하고 불교문화 콘텐츠의 개발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가 11월 4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조현철 경북전문대 교수는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부진의 원인을 시장 부재에서 찾았다.

조 교수는 “대개의 디지털콘텐츠가 2차원 형태에 머물던 90년대 불교계 웹사이트에서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선도했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문화재정의 국가문화유산종

합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의 모델 역할을 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콘텐츠의 진화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에 대해 조 교수는 “인적·물적·기술적 인프라는 구축돼 있으나 시장 형성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그에 대한 처방으로 “불교문화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시장 창출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요예측·소비자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사과문

(사패산 터널 보상비와 관련하여)

귀의삼보하옵고

사패산 보상비 문제와 관련하여 종도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송은 주지 취임 이후로 교구와 지역불교발전회 이바지하고자 저의 작은 소견으로 소방대를 운영하고 환경문화교육장을 마련하는 등 미력하나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근래 문제된 보상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환경사랑의 깊은 의미와 많은 분들의 관심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간과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의정부 시민들과 사패산에 관련된 모든분들에게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상비 운영방안은 사찰부동산관리령 제20조에 의거했으며, 13명의 운영위원의 공론을 거쳐 진행해 오던 중, 지난 2월 불교환경연대의 의견이 있어 이미 3월 22일 자

로 전액 회수되어 회봉사 수행환경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바와 같이, 이 보상비 전액을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더욱 가치 있게 쓰여 질 것입니다.

큰스님들과 대중스님들을 받들며 교구를 잘 운영하려던 것이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임을 사부대중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방의 원로대덕큰스님들과 사부대중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숙여 참회드립니다.

아울러 교구불교발전 및 환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정진 할 것임을 제발 보살님진에 발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불기2549년 11월

대한불교 조계종 제 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철안 합장